

설 선물 키워드 '프리미엄·건강·친환경'

청탁금지법 20만원 허용에 정육·홍삼 등 수요 급증 유통업체, 고급화 전략...우수 농수특산물 세트 선택

올해 설 선물세트 키워드로 '프리미엄·건강'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2년 차를 맞아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으며 고향에 가는 대신에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을 구입해 택배로 보내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액을 기존 10만원에 20만원으로 상향해 한우와 과일 등 농수산물과 홍삼 등 건강식품, 와인 등이 매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24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 집계 결과 식품 15%, 농산 14%, 축산 6%, 수산 26%(굴비 46%), 와인 26% 등을 기록했다.

한우 등 축산은 전년 대비 6% 성장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30만~40만원대의 상품이 인기가 높으며 선물 객단

가도 평균 20만원 이상으로 매출 구성비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개정되며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프리미엄 한우·굴비 등 상품의 물량을 작년 설보다 20% 늘렸다. 현지 바이어를 활용해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기획했으며, 전남남도 6차산업 우수 특산물 세트도 선보였다.

광주지역 이마트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 분석 결과를 보면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전년비 32.3% 신장했다.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3년 전인 2019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8.0%로 나타났다.

이마트도 백화점과 경쟁하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공을 들였다. 청탁금지



24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을 찾은 고객들이 사과, 배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법 선물 가능액 상향으로 20만원 이상 고가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는 작년 설보다 상품 수를 4종 더 늘린 30여종의

피코크 시그니처 상품을 준비했고 주요 상품 물량을 최대 2배 가량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주요 선물 객단가를 15만~20만원으로 정하고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인기가 높은 정육, 과일, 홍삼 등 인기 상품 구성과 물량을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명절 선물에 대한 인식

도 바뀌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는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선물을 구매해 친척이나 지인 등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대상은 줄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진심을 담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는 올해 설 선물세트를 친환경과 프리미엄에 중점을 뒀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 포장지와 친환경 보냉백 사용을 확대했다.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와 풍기통으로 인쇄한 종이상자를 제작해 기존 포장지를 대체했다. 친환경 보냉백은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원단인 R-PET와 페이류, 종이 보드 등으로 제작했다. 1인 가구를 위해 설 선물세트 소포장 기프트를 선보였다. 정육세트는 중량을 1kg으로 낮추고, 과일 세트는 6개 구성으로 바꿨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명절 문화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3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한우, 굴비, 과일 등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가 인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중기청, 물류바우처 참여 중기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장대교)은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국제 물류난으로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신설됐으며,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에 물류비용의 70%,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물류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시간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

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 검토를 통해 지급된다.

이문범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은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aT, 업사이클링 수익금 국제구호단체에 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폐쌀포대를 재활용해 제작한 파우치백의 판매수익금 전액을 국제구호단체 러브씨드에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하루 한 끼 식사 조차 해결하기 힘든 케냐 원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공사는 우리쌀 5만t의 해외 식량원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쌀포대를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파우치백을 제작했으며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준비한 수량 300개가 조기 완판되며 약 480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

김춘진 사장은 "이번 폐쌀포대 업사이클링은 자원 재활용의 가치와 함께 폐쌀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폐쌀포대를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파우치백의 판매수익금 전액을 국제구호단체 러브씨드에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훈 러브씨드 대표. /aT 제공

대 소각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구온

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S-CLASS

2020 건설업력경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도 대상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시 중흥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주 신동시 중흥S-클래스

자동조절 기능 '투명 LED 전광판' 기술개발

광기술원, 소비전력 50% 절감·자유로운 밝기 조정

한국광기술원은 투명 LED 전광판의 소비전력을 5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고해상도에서 자유로운 밝기 조절이 가능한 능동구동 방식의 투명 LED 전광판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술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능동구동 방식은 LCD, OLED 등 평판형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면 단위로 동시에 화면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적은 전류로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당 기술은 투명 LED 전광판 외 일반 LED 전광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소비전력 절감과 해상도·화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자동차·시네마·문화·예술·디스플레이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

기존 투명 LED 전광판은 화면상에 불투명한 배선을 시각적으로 감춰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라인 내 화소를 순차적으로 구동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순차 구동 방식은 화소가 주기로 점멸하기에 깜빡임, 어른거림과 같은 플라즈마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전류를 빠르게 인가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매우 높다. 최근 디스플레이 면적의 대형화로 화소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순차 구동방식은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번에 개발한 능동구동 방식의 투명 LED 전광판에는 자체 개발한 투명 전광판의 고해상도화가 가능한 투명 모듈 및 디스플레이 기술과 구동부와 영상 생성부(서버) 간 연결을 무선으로 확장하는 유·무선 게이트웨이 기술을 적용

했다. 와이어본딩 기술을 적용한 기존의 투명 LED 전광판 광원 패키지의 최소크기는 2mm×2mm로 고해상도 전광판에는 적합하지 않다.

광기술원에서 개발한 광원 패키지는 와이어본딩이 필요 없는 플립칩 기반 패키지이다. 패키지의 최소 크기가 1.2mm×1.2mm로 면적이 기존 대비 64%에 불과해 투명 전광판의 고해상도화가 가능하다.

김정현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장은 "미니 LED 및 마이크로 LED 기술 등장에 따라 다양한 고해상도 투명 전광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개발 기술의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다"며 "이번에 개발한 LED 전광판 기술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6천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 6,000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체험형 인턴 규모도 지난해 2만2,000명보다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

회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 안전 강화, 한국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

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의 올해 규모를 작년 2만2,000명보다 더 늘려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형평적 채용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미충분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